

# 여권 잠룡들, 기본소득제 vs 기본자산제 매개 텃밭서 세불리기

### 이재명 지지 광주본부에 이어 전남본부 13일 출범 김두관도 11일 광주시의회서 토론회...2박3일 일정

여권의 잠룡들이 더불어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에서 기본소득제와 기본자산제 정책공약을 매개로 세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여권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기본소득제를, 김두관 의원은 기본자산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2일 기본소득운동본부 전남본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남본부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다. 광주본부는 지난 1월 이미 출범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기본소득 제도' 입법 추진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남 본부는 공동발기인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기본소득국민운동 중앙본부 출범이후 새로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기본소득에 대한 전



이재명 김두관  
남도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에는 최병상 전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과 장만재 전 전남도교육감, 안희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본부 준비위원회 안희만 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사회 실험이 활발하게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힘으로 뭉쳐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고 국민이 직접 내서는 국민행동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룡 중 한명인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기본자산제 토론회도 오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김 의원 지지조직인 민

부정책연구원 광주지부와 전남지부가 출범한 가운데 김 의원은 오는 11일 2박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방문해 기본자산제 확산에 나선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열리는 기본자산제 토론회에 참석하고 이용섭 광주시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기본자산제는 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정부가 한 번에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로 재산의 많고 적음이 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인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민부정책연구원 장현 정책의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주장하는 '기본자산제'는 신생아 명의로 2000만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하도록 한 후 성인이 되는 20세에 약 5000만원의 시드머니를 미래에 위해 사용하는 구상이다. 장 정책의장은 "연간 30만명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조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본자산제는 기회의 균등을 실현해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출산율 증가에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 김희재, 광양만권 환경오염 특단 대책 촉구 전남 동부권 의원 3인 공동기자회견...“정부 나서 특별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전남 여수)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의원 4명이 광양만권 환경오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주철현(여수 갑),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 을), 김희재(여수 을) 의원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의 환경 및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양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제철소에서 날아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나, 포스코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는커녕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여수시 묘도동 한 마을의 경우, 주민 200명뿐인 작은 마을에서 무려 26명이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사망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아연과 카드뮴이 환경기준법상 오염 기준치보다 각각 7배와 3배, 2급 발암 물질인 니켈이 9배 넘게 검출되고, 수은과 납까지도 검출이 됐는데, 이 모두가 제철소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는 수십 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인근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환경개선을 위해 이미 약속한 친환경 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행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나서서 포스코 환경 공해의 원인 물질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제철소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분명한 원인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만권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도 촉구했다. 광양만권을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할지역이 광주·전남 전지역과 경남 일부지역, 제주도까지로 광범위하고, 그 업무가 수계관리, 환경생태보전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광양만권의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배경이다. 이들은 “2019년에 발생한 여수국가산단 배출가스 조작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대규모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광양만권의 환경문제를, 광주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담하기에는 지리적·인력적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며 “정부는 광양만권의 환경오염 점검인력 확충과 지역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김종인 “안철수, 현재 지지율만 보고 착각...4번으론 못이겨”

“안, 처음부터 자기 편리한 조건만 제시”  
“단일화 필수지만 3지대 후보 승산 없어”  
“안 만날 의향...여조 외 다른 방식 고민”  
내일 최종 후보 선정후 협상 본격화 전망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에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응해야 자기 편리한 단일화 조건을 제시해 갖고는 (단일화가) 될 수가 없다”라고 직격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 돼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이길 수가 없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 후보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게 단일화였다. 지난 11월 중순에 자기가 야당 단일후보로 나가겠다, 자기로 단일화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시작했다”며 안 후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기호 2번 국민의힘이나, 기호 4번 국민의당이나 이걸 강조했을 때, 과연 4번 가지고서 선거 이기겠다고 확신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안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는 시점부터 자신이 야권 단일

화 후보가 돼야한다는 이른바 ‘기승전안(철수)’식 단일화에는 동의할 수 없고, 금세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제3지대 후보가 됐으니 이제 국민의힘과 단일화만 남았다는 안 후보의 단일화 접근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국민의힘-안철수-민주당의 3자 구도 가능성에 대해서 “야권 단일화가 안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단일화는 필수이며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후보가 돼야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만나러 온다면 만나야 할 것”이라며 안 대표와 협상 가능성은 열려있어 오는 4일 국민의당과 단일화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합당과 입당 없이 선거 이후 야권 재편이 불가피하는 국민 의당 입장에 대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3의 후보라는 사람을 데리고 단일화를 하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는 게 기본적 내 생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 지지율을 뛰어 넘지 못하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을 극복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나타나는 지지율이란 건 진짜 지지율이 아니다”라면서 “안 후보랑 우리당 후보랑 여론조사를 하면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쪽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가 그걸로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될 거라) 착각을

하는 거 같다”라면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권 견제와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3지대에서 나타난 후보가 단일화해서 선거에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말고도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이후 이야기 하겠다”라고 했다. 또 보궐 선거후 자신의 거취를 묻는 질문엔 “내 스스로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취재본부김승호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